



2021 교회 표어

내 증인이 되리라! (행 1:8)

주일 예배 순서	오전 11시30분 인도 박현수 목사
*기 원	목 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수 앞에 나오면 (찬287) 나의 소망 되신 주
기 도	이래헌 집사
성경봉독	사도행전 28장 11-15절
특별찬양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대-
설 교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박현수 목사-
광 고	인도자
찬 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헌금기도/축 도	박현수 목사

*표는 일어서서

헌금은 입구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Youtube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시카고 하이랜드 장로교회"를 검색하시거나, 교회 웹사이트에서 Youtube 링크를 click 하시면 됩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2회, QT 영상도 제공됩니다. 구독하시면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P C A 하이랜드교회
한인중부노회

HIGHLAND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박현수 (Rev. Jason Hyunsoo Park, Pastor)

820 S. Milwaukee Ave. Vernon Hills, IL 60061 ☎(847) 634-6033

www.highlandchurch.com (web) highlandchurch1977@gmail.com (교회)

parkhyunsoo@hotmail.com (담임목사) hellofromhighland.com (EM Web)

◀저를 안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가끔 저를 잘 안다는 사람을 만났다고 이야기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누구를 만났는데요, 그분이 목사님을 잘 아신데요. 목사님하고 아주 친하시네요" 대충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확인해보면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인 경우도 있고, 그냥 한두 번 만난 사이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아 그래요?'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를 안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질이 안 좋거나,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면 그냥 아는 사이일 뿐 친한 것은 아니라며 애써 그 관계를 부인하기도 합니다. 평판이 안 좋은 사람과 친분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언급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혹 하나님 편에서 '날 안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와 친분이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보다는 행동입니다. 백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실질적 친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에게 흠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목-

◀ 광고 ▶

- 정기 당회: 다음 주(9/5) 예배 후
- 교회 설립 44주년 기념주일: 9월12일은 교회 설립 4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특별히 목상하시기 바랍니다.
- 미주 온라인 북한 선교학교: 9/14/2021-11/23/2021 매주화요일. 등록비 \$70. 관심 있으신 분은 박현수 목사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협력기도: 권순조 권사(허리), 김승연 집사(사고)
- 다음주 기도: 최의순 장로

◀ 교회를 섬기는 분들 ▶

담임 목사 박현수
E.M 목사 홍정모(Abraham)
교육전도사 유은석(Peter, 중고등부)
신준식(James, 유초등부)
시무장로 최의순
성가지휘 강수경
찬양팀 최의순 최의설 강수경

◀ 후원 선교사 ▶

MTW - 강충만
캄보디아 - Nuth Sydeth
NOVO(NK) - 서예레미야
니카라구아 - 정영효
Navigator - James Kang
Global Hope - 조용중
*우리는 교인의 1%를 선교 보내는 1% 찬런지 교회입니다!